

눈에 오는 중풍...치료 놓치면 실명

의료 킬링

〈망막혈관폐쇄증〉

흔히 우리 눈은 카메라에 비유되곤 한다. 망막혈관폐쇄증은 눈 안에서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혈관이 막히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말한다. 망막 내 동맥과 정맥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치료시기를 놓치면 실명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망막혈관폐쇄 환자 수는 2011년 4만 5,010명에서 2015년 5만 8,322명으로 4년간 29% 증가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50대와 60대에 많았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젊은 층의 혈관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젊은 망막혈관폐쇄 환자도 증가 추세다. 현대병으로 알려진 망막혈관폐쇄증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예방법, 치료법에 대해 보라안과 이준성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망막정맥폐쇄

망막혈관폐쇄증은 크게 망막정맥폐쇄와 망막동맥폐쇄로 나뉜다.

망막정맥폐쇄란 망막 내의 정맥이 고혈압, 혈관경화 등의 여러 이유에 의해 막히고 정상적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머리 속의 혈관이 막혀 언어장애, 사지의 운동장애 등을 야기하는 것을 중풍이라고 하는 데 눈 속의 혈관이 막혀 눈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질환을 눈에 발생한 중풍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주로 안구 내 혈관의 이상을 가져오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발병률이 높으며 평균발병연령은 약 60대 초반이다.

시신경유두근처의 큰 망막정맥이 폐쇄됨에 따라 안구에는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혈액이 순환해야 하는 혈관이 막힘에 따라 혈액이 혈관 벽 밖으로 퍼져나가는 망막출혈, 망막부종 등이 발생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시력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길이 막혔을 때 다른 우회도로를 찾아가듯이 폐쇄된 혈관으로 순환이 되



보라안과 이준성 원장이 망막혈관폐쇄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망막혈관이 막혀 시력이 떨어지는 위험한 질환

환자 4년간 29% 증가...남성보다 여성이 많아

혈압·혈당관리 중요...연 1회이상 검사 필수

지 않아 그 주변으로 일종의 우회도로인 신생혈관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신생혈관들은 정상혈관의 형태가 아니라 쉽게 파열돼 망막출혈, 유리체출혈 등을 야기해 급격한 시력 소실을 가져온다. 또한 눈의 앞쪽 부분에도 신생혈관들이 자라나서 신생혈관녹내장 등을 야기해 안압을 상승시키고 눈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심한 시력저하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시력감소를 이유로 안과로 내원하는 경우 안저검사상 전반적인 망막출혈, 부종, 혈관확장 등을 보이면 이 질환을 의심하며 형광안저조영술, 망막단층촬영 등을 시행하게 된다.

◇망막동맥폐쇄

주로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망막의 동맥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장판막증이 있거나 부정맥 등이 있으면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황반부 주위의 동맥이 막히면, 환자는 위 또는 아래 부분이 어둡게 느낄 수 있다. 안과적으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망막동맥폐쇄는 안과에서 응급진

환이다.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치료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즉시 치료해야 한다. 발병 후 2시간 이내 안압을 낮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망막동맥폐쇄는 망막정맥폐쇄보다 시력 감소가 심하지 않지만, 합병증으로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한다.

◇치료법

치료는 내과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안과적 치료는 시력회복과 합병증의 예방이 주목적이다.

황반부의 부종에 의한 시력감소는 국소 레이저광응고술 혹은 스테로이드나 항VEGF 유리체腔내로 주사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형광안저촬영검사에서 유리체 출혈이나 신생혈관녹내장이 예상되는 경우는 망막하혈부위를 레이저로 파괴시킴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유리체 출혈이 생긴 경우는 유리체제거술로 수술을 하여 시력회복을 시킬 수 도 있다. 시력의 예후는 병변의 황반부 침범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황반부 부종이 심하거나 허혈이 있으며 시력이 많이 저하되나 다행히 폐쇄부위가 좁아서 황반부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예방법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평소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즉 혈압이나 혈당을 잘 조절하며, 혈액내의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의 수치를 낮추도록 하고,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등으로 평소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40대 이후에는 아무런 증상이나 질병이 없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눈 검진을 받아 녹내장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망막혈관폐쇄는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시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안과에서 검사를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종찬 기자



도움말
이준성
〈보라안과병원장〉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달 27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활용 업무개선 워크숍’을 갖고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료현장의 적용사례와 업무활용 효과, 향후 개선 계획 등을 밝혔다.

“빅데이터로 서비스 개선한다”

화순전남대병원, 진료현장 적용사례·활용효과 공유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달 27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활용 업무개선 워크숍’을 갖고 의료 혁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25개 진료·행정부서가 참여,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료현장의 적용사례와 업무활용 효과, 향후 개선 계획 등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약제부의 환자 투약 대기시간 관리·조제 업무량 분석과 약품재고 관리 개선계획 등은 모범사례로 꼽혔다. 시설과의 냉동기 운전방식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람직한 시도로 주목받았다. 재활의학과와 진료·검사·치료일정

통합시스템 구축은 좋은 아이디어로 추천되기도 했다.

진료협력팀과 간호부 등에서 모바일 앱·바코드 시스템 등을 활용한 업무 추진방안을 밝혀, 보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기대케 했다. 의료질관리실에선 환자확인·손위생 등 각종 지표의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서비스 영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팀장급 이상의 참석자들은 병원측에서 3개월전에 사전배부한 ‘의료, 4차산업혁명을 만나자’ 등 두 권의 책을 읽고, 상호 소감을 나누며 “미래의 의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을 주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찬 기자

조선대병원 김석원 교수 ‘2018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조선대병원은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서 선정한 ‘2018 앨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가 경제,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의 탁월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석원 교수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및 척추신경외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이 며 있으며, 특히 뇌와 척추 신경

손상 환자의 치료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발표 등 진료와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명사전 등재와 함께 평생 공로상을 받게됐다.

/김종찬 기자

건보 광주본부, 워라벨 문화 ‘앞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해피-워라벨 캠페인’ 선포식을 최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워라벨(Work-life balance)은 일과 삶의 균형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써 최근 환영받는 직장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효율적인 시간과 회의문화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야간근무 줄이기, 119회식(1가지 종류로 1차에 9시 전에 회식 종료) 등 직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울러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가사노동 양성분담 실현을 적극 격려하고 있으며, 난임직원과 임신직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공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로21병원
MIRAERO 21 MEDICAL CENTER

건강한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미래로21병원이 함께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 (화정동)
대표전화. 062) 450-1000

보건복지부지정
관절전문병원
지정기간 : 2015.1.1~2017.12.31

동이병원

대표전화 : 062) 650-2500
응급실 : 062) 650-2999
건강증진센터 : 062) 650-2541
61656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www.hkh.co.kr http://cafe.naver.com/hkh3000

광주한국병원
Hankook Hospital

서구 월드컵4길로 223
대표전화 062. 380. 3000
응급실 062. 380. 3119

운암한국병원
북구 북문대로 191
대표전화 062. 608. 8000
응급실 062. 608. 8119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병원 **에덴병원**

- 최신 하이푸 도입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 선근종 비수술치료
- 제1회 임신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한국 여성민우회 “아름다운 병원” 선정
- 전국병원 의료기관 중 부인과 수술비가 가장 낮은 1위 병원

에덴병원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TEL 260-3000 / FAX 267-0550

毛&미라클의원
062) 419-1883

광주 미라클의원,
국내 첫 ‘**로봇 모발이식**’
최우수병원 인증

www.kmiracle.co.kr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